

## 한국부식학회 포항지부

김 기 태

경북 포항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제철산업의 중심인 포항종합제철, 강원산업 등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공단도 함께 위치하여 강관 등을 비롯한 각종 금속 제품들의 제조, 가공, 응용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같은 우수한 대학 및 연구소들이 함께 자리하여 철강 등의 소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포항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식 및 방식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심이 많았고 이에 따라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특히 근래 들어 교량이나 건물, 강구조물들의 안정성 및 이에 미치는 부식의 영향 등, 재료의 열화(degradation) 현상에 대한 관심이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급증함에 따라, 날로 높아져가는 부식 및 방식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또한 이를 우리 한국의 부식학계의 한 커다란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1996년 5월에 '한국 부식학회 및 표면공학회 포항지부(POSCOS : Pohang Society of Corrosion and Surface treatment)'가 결성되었다.(특히 본 지부는 부식 및 방식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활동의 장을 만들고자 한국부식학회와 한국표면공학회의 공동지부 형태로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지부의 연륜이 짧아 아직 많은 활동이 있지는

않았으나, 주요 지부 활동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술교류회 : 본 지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분기 1회 이상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 학술 seminar와는 달리, lunch meeting 등의 형태로, 비교적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나 관심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수용액 부식, 대기 부식, 자동차용 배기관 부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2) 부, 방식 강습회 : 포항 지역의 부식 및 방식 관련 현장 engineer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동계에 실시할 예정이다.

3) 기타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외부 초청 seminar 및 workshop(주제별-년 1회)

② 부, 방식 기술 자문(산업계 대상)

③ 포항 지역 부식 및 방식 관련 인력 data bank 수립

④ 소식지(newsletter) 발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부 회원은 약 45명 정도이며,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 현장 인력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지부 활동의 주요 안건은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있다.

### 지 부 임 원

지 부 장-김규영(포항공대)

부지부장-권영각(RIST), 진영술

(포스코 기술연구소)

감 사-이용득(포스코 기술연구소)

총 무-김기태(포스코 기술연구소)

본 지부는 창립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하여 운영과 활동에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본 지부가 작게는 포항지역의 부식 및 방식학계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크

게는 우리나라 부식 및 방식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회 회원 여러분의 귀중한 조언과 충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 지 부 연 락 처

지부장 : 김규영(포항공대 철강대학원)

Tel : 0562-279-2134

총 무 : 김기태(포스코 기술연구소)

Tel : 0562-279-6424



◀ 지부 창립식 (1995. 5. 10)에서 포항종합제철의 한수양 이사(당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황순영 부식학회 이사가 지부 창립기념 seminar를 하고 있는 모습.

